

인간이 소유한 개성의 선물

The Gift Of Individuality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일하신다. 그 분께서 모든 사건들을 관리하실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분에 움직이심을 파악할 수 없다. 바퀴 안에서 바퀴가 일한다. 이는 분명히 아주 복잡하고 뒤얽힌 기계가 완전히 얽혀진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스겔 1:15-28절]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신의 손이 바퀴 위에 있고, 모든 부분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면서, 각기 명확한 일을 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MS 13, 1898) 또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와 같다. 이 일에 담당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른 모든 인간 조직의 멤버들이 온전한 몸의 형태로 연합하고, 또 각자가 지혜롭게 순종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완전하게 관리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들이 균형잡힌 한 몸으로 연합될 것이고, 완전한 지성과 성화된 생애가 주제가 될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고린도전서 12:12-14, 18-19, 25-27)

우리는 실족하는 자들을 주시하지 말자. 그들의 악한 특성과 기질에 대하여 말하기를 중단하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주께 질문하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라오라..." 고 하셨다. 우리 임무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별적인 신앙과 경건이다. (RH 16 April 1889)

신앙은 우리가 창조주에게 되돌려드려야 할 의무이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범절이다. 자유는 실제로 환경에 영향력을 힘입어 다른 자들을 얽매거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적인 판단력과 동기에 따라야 하고, 윤리적인 인생관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 의지와 자유 의사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그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 자신의 자유 의지와 자유 의사에 달려있다. 사람의 임무는 창조주께 책임을 완수해야 할 범절과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사물들의 본질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관련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행할 임무 외에는 다른 임무들이 없었다. 우주 안에 남자가 창조되어, 오직 한 지적인 피조물이었던 때를 생각할 수 있다. 그가 오직 한 사람으로써, 창조주와 관련된 그의 임무를 행하였다.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분과 관련된 의무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신명기 6:4,5) 어떤 영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계명들이, 최초에 어떤 것을 말씀하신 바에 의하거나 그것이 상세히 기록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지적인 피조물들에게 첫 번째 원칙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에 사람이 지적인 피조물로 타고난 순간, 그 원칙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고 퇴색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에 거하였다.

지금, 비록 그 원칙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 원칙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임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무가 지적인 피조물으로써 전적인 존재로 타고났을지라도; 여전히, 의무 안에서 타고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자유롭게 지적인 피조물들로 창조하셨다. 그가 그의 임무를 분간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가 가진 임무를 실행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갖게 하고 -- 우리가 창조주께 빚진 임무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 자유 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자신의 행위들을 결정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본래부터 그 자체가 합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헌신이든지 사람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과 억지, 사랑과 완력, 사랑과 압박이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임무든지 어떤 의무든지, 하나님께 행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자신 스스로의 선택권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 천사나 사람 - 어떤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로를 기뻐할 것이고, 고결함으로 정연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이 소유한 개성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범죄 하였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부터 분리되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방법은 자유의 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영혼의 자유'를 사람에게 완전히 보장하여 준 것을 나타낸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역사이다. 이것이 오직 참된 자유이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참으로, 영감의 기록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독재 정치를 설명하였고; 또 메데 페르시아 정부의 권력이 지상권에 법이었음을 [다니엘 6장]에서도 설명하였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유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로마 권력과 결합하고 그 유대 교회가 로마 국가와 연합한 것을 설명하였다; 이스라엘 교회가 그리스도 제자들 교회를 대적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하였다; 종교는 권력이나 사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더 더욱 충성함을 강조한 것이며,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도 참되고 균등하고 옳게 행한 자들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며, 남자답게 행한 다니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사도들이 그러한 모든 주장들을 단호하게 무시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과 통치하심이 빼앗김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특권으로 진행되어야 할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완전히 쾅개쳐진 그곳에 잘못된 것이 세워졌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나 '의'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한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오직 옳은 것처럼 우세하다.고 해서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사람이 결코 진실하게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도 진실하게 행할 수 없으며, 바르게 행할 수 없고, 그 자신과 동료들에게도 진실하게 행할 수 없는가?

신앙 안에서 독재주의의 어떤 특권도 인정하기를 거절한 히브리 세 청년들이 진실하게 행한 것이다. 신앙 안에서 국가 정부의 어떤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절한 다니엘이 옳게 행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통한 어떤 교회의 특권으로 그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분께서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게 행하신 것이다.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옳게 행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또는 믿지 않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교회의 어떤 특권으로 결정하거나 명령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다. 이러한 각 사건들에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옳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완벽하게 알리셨다. 이렇게 그들이 공공연하게 옳게 행하여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코스로 행한 모든 능력과 각 사건들에 스토리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 지당하게 행한 모든 사람들을 영구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 각자가 행한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처한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 당시에, 시대로부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옳게 행하였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류 안에서 참으로 남자답게 고결함으로 옳게 행한 것이다; 참으로, 그들과 그와 같이 은총 입은 개개인들이, 세상 자체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도록 수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성들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그 분께서는 사람이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지성들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선택의 자유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한 지성이 선택할 수 없게 되면 자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분께서는 사람을 다른 지성들과 동등하게 만드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택의 자유의 창조자이신 그 분을 항상 존경한다. 한 지성이 이 선택의 자유를 적용할 때,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선택하게 되고, 당연히, 창조주께서 디자인하신 의도 안에서 엄격하게 순종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므로, 진실로, 참으로, 창조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그가 창조주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완전히 참된 센스 안에서 참된 자주 관리이다. 그리고 지성들 각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배할 때에 전적으로 그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행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절대권위에 일부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정부 원칙에 다스림을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부가 통치자와 다스림 받는 자, 창조주와 피조물 둘 다 관련지어서 완전히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임을 논증하여 잘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개성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개성과 자유를 잃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그가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야쉬와]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소유한 개성이 창조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람이 소유하였던 개성의 선물이 회복되었다. 가인부터 티베리우스 시저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독재정치에 사악함이 긴 세월동안, 계속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압박하여,

사람의 개성을 흔적도 없이 모두 강탈하였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사람이 최초로 소유한 개성이, 영원한 토대 위에 설립된 것이므로,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얻은 모든 지식을 단계적으로 행하도록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15** 그러므로, 본래 꾸밈없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 없이는 인간의 참된 개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의 이름이 독재정치에 관심사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긴 시대를 통하여 황제 지배 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또 다시 조직적으로 인간의 개성을 흔적도 없이 모두 강탈하였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개성을 회복하셨다. 그러나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의 형식들과 교리들을 철면피하게 만들었고; 또 프로테스탄트의 모든 형식과 교과를 거절하였으며, 기독교인의 자유와 인간의 개성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종교 안에 종파와, 나라와,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연합과 동맹 그리고 종교들을 통하여, 또 다시 교회 안에서 황제 지배주의를 지지하는 독재정치를 행하므로, 징조에 속임수와, 거짓의 놀라운 성과로, 모든 세상에게 역사 하는 능력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의 개성에 흔적을 체계적으로 강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처럼, 항상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사람의 개성이 하나님의 절대권위의 선물이므로,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가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계시록 **15:2,3, Adapted from individuality in Religion.**

Related Links:

The Creation 7th Day Adventist Church

Christian Unity

The Creation 7th Day Adventists. Who Are They?

The Ideal Church and Ideal State

Babylon is Fallen

The Trademark Name

The Creation 7th Day

The Sabbath Rest Principle

The Three Sabbaths